

친애욕구 척도의 신뢰성 및 타당성 보고

차 재 호 · 정 지 원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친애욕구 척도(차, 1983)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기 위하여 동 척도를 사용한 4편의 학위논문 결과를 분석했다. 동 척도의 두가지 하위척도인 친애경향성과 배척민감성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각각 .87과 .91이었고, Cronbach 내적합치도는 각각 .77~.82, .76~.91이었다. 친애경향성 점수는 배척민감성, 성공욕구, 실패공포, 및 승인욕구 점수와 각각 독립적임이 드러났고, 배척민감성 점수는 성공욕구나 승인욕구 점수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실패공포 점수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친애경향성 점수는 상대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주는 상황에서 (1) 상대방으로부터의 칭찬이나 비난에 민감한 것, (2) 마음을 열고 감정을 표현하는 경향, 및 (3) 비난을 받을 때 의존적인 반응으로 상대의 호감을 얻으려하는 경향을 측정함이 밝혀졌다. 배척민감성의 구인타당성을 보여주는 자료는 없었다. 그리고 친애욕구 점수(친애경향성+배척민감성)는 (1) 타인과의 관계가負的으로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 그리고 (2) 두 사람간의 의견일치를 기대하는 경향을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친애욕구 척도(車載浩, 1983)의 신뢰성과 타당성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척도는 Mehrabian(1970)의 척도를 토대로 제작한 항목형 검사이다. Mehrabian(1970)에 따르면 친애욕구는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동조적이며 의존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성격 속성으로서 접근경향을 나타내는 친애경향성(affiliative tendency)과 회피경향을 대표하는 배척민감성(sensitivity to rejection)의 두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Mehrabian(1970)은 이 요인들이 서로 독립적이라고 보고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강화를 받을 것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를 측정하는 친애경향성 척도와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강화를 받을 것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를 측정하는 배척민감성 척도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일련의 실험을 통해서 친애경향성 척도는 긍정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것과

같은 친애행동과 관련이 있고, 배척민감성 척도는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는 것과 같은 동조성과 관련이 있음을 보였다.

車載浩(1983)가 제작한 척도도 위의 두 접근 및 회피경향을 포함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친애욕구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관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이 친애욕구 척도는 친애경향성을 재는 21개의 문항과 배척민감성을 재는 23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서 “아주 반대(-3)”부터 “아주 찬성(+3)”까지 7점 척도상에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이 척도를 사용하여 친애욕구 수준을 알아보는 방법은 4가지가 있다: (1) 친애경향성 점수만을 사용하는 방법, 예컨대 친애경향성을 재는 문항들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을 친애욕구 동기가 높은 사람이라고 보고 점수가 낮은 사람을 친애욕구 동기가 낮은 사람이라고 보는 방법, (2)

배척민감성 점수만을 사용하는 방법, (3) 친애경향성 점수와 배척민감성 점수를 합산하여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4) 친애경향성과 배척민감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법, 예컨대 친애경향성 점수가 높고 배척민감성 점수가 낮은 사람을 친화집단이라고 보는 방법이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상기 친애욕구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관한 자료는 등 척도를 사용한 석사 및 박사 학위 논문들의 연구 결과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논문들의 자료를 토대로 새로운 분석을 하였다.

방 법

분석자료

동기진단 검사(車, 1983)를 사용한 석사학위 논문 3편(김영미, 1990; 장영수, 1984; 한보란, 1989)과 박사학위 논문 1편(김수현, 1987)을 분석했다. 논문들은 1984년 2월부터 1990년 8월 사이에 발표된 것들이다. 각 논문에서의 응답자들은 모두 대학생들이었다

결 과 및 논 의

친애욕구 척도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친애 경향성 척도와 배척민감성 척도 각각의 남녀 대학생의 평균 및 표준편차가 표1에 나와 있다. 표1에 제시된 자료는 김수현(1987)의 연구와 한보란(1989)의 연구 자료를 병합하여 산출한 수치이다. 각 척도 점수를 남녀별로 비교해 본 결과 친애경향성과 배척민감성 모두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각각 $t=2.55, 6.33, df=1481, p < .01$. 친애경향성과 배척민감성간의 상대적 강도에서 남녀간의 차이

<표 1> 각 척도별 평균 및 표준편차(괄호 안)

성별	친애경향성	배척민감성	표본	조사연도
남자 ^a (n=401)	15.40 (14.91)	11.36 (14.16)	대학생	1987
여자 ^b (n=1082)	17.61 (14.49)	16.71 (14.41)	대학생	1987 1989

주. ^a김수현(1987)의 자료에 의함. ^b김수현(1987)과 한보란(1989)의 자료를 병합한 것임.

를 보였다. 남자에서는 친애경향성이 배척민감성보다 강한 경향을 보였으나($t=3.698, df=400, p < .01$), 여자에게서는 두 경향성의 수준이 비슷했다.

친애욕구 척도의 신뢰성

각 척도별 신뢰도 계수를 표2에 제시했다. 친애경향성 척도, 배척민감성 척도, 및 이 둘을 합한 친애욕구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 r 은 모두 .85 이상 있었고 Cronbach 내적 합치도(internal consistency) α 는 모두 .75이상이었다. 그러므로 각 척도는 상당히 신뢰로운 검사임이 입증되었다.

친애욕구 척도의 타당성

친애욕구 점수와 다른 동인 점수간의 상관 친애욕구 척도의 구인타당성(construct validity)을 알아보기 위해서 친애욕구 척도의 하위척도인 친애경향성 척도 점수와 배척민감성 척도 점수간의 상관 뿐만 아니라, 각 하위 척도 점수와 車(1983)의 동기진단 검사 속의 다른 동기 척도 점수들과의 상관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가 표3과 표4에 나타나 있다.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애경향성 점수와 배척민감성 점수의 상호상관은 매우 낮았다. 그러므로 두 척도가 독립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친애경향성 점수와 다른 동인 점수들 간의 상관도 낮았다. 친애경향성과 다른 동인들간의 상관계수는 -.13에서 .07에 걸쳐 있었다. 친애경향성 점수는 성공욕구 점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나, 그 정도는 $r=.10$ 으로 낮았다. 나머지 동인 점수들과의 유의미한 상관은 없었다. 그러므로 친애경향성 점수는 배척민감성 점수, 성공욕구 점수, 및 실패공포 점수와 같은 동기진단 검사(車, 1983)의 다른 동인 점수들이나 승인욕구 점수(금명자, 1984)와 독립적임을 알 수 있다.

표4에서 보면 배척민감성 점수는 성공욕구 점수와 낮지만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두 연구에서 각각 $r=-.37, -.27, p < .002$) 이는 타인으로부터 배척당하는 것에 대한 공포가 큰 사람일수록 그의 성공하고자하는 동기는 낮음을 나타낸다. 또한 배척민감성 점수는 실패공포 점수와 상당한 크기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r=.43$ 혹은 $.30$). 자신이 배척당하는 것에 민감할수록

<표 2> 각 척도별 신뢰도 계수

	계수	대상자(대상자 수)	조사시기
친애경향성 척도			
검사-재검사	$r = .87$	대학생 (42)	1983 ^a
Cronbach	$\alpha = .82$	대학생 (202)	1983 ^a
내적 합치도	$\alpha = .77$	대학생 (568)	1990 ^b
배척민감성 척도			
검사-재검사	$r = .91$	대학생 (42)	1983 ^a
Cronbach	$\alpha = .85$	대학생 (202)	1983 ^a
내적 합치도	$\alpha = .76$	대학생 (568)	1990 ^b
친애욕구 척도			
검사-재검사	$r = .91$	대학생 (42)	1983 ^a
Cronbach	$\alpha = .81$	대학생 (202)	1983 ^a
내적 합치도	-	-	-

주. ^a차재호(1983)의 연구결과임. ^b김영미(1990)의 연구 결과임.

<표 3> 친애경향성 점수와 다른 동인 점수들 간의 상관

연구자(연도)	n	배척 ^a 민감성			
		성공 ^a 욕구	실패 ^a 공포	승인 ^b 욕구	승인 ^b 욕구
김수현(1987)	1265	.03	-.10**	.07	-.04 ^c
한보란(1989)	219	.04	-.13	.07	
김영미(1990)	568	.06 ^c			-.05 ^c

주. ^a차재호(1983)가 제작한 동기진단 검사의 하위 척도 들 임. ^b금명자(1984)가 제작한 척도임. ^c원래의 연구에서 제시한 상관계수임. 나머지는 본연구에서 새로이 산출한 것임.

** $p < .002$.

특 실패에 대한 공포도 커지는 것이다. 이것은 대인관계에서 배척당하는 것에 대한 공포가 성취 장면에서의 공포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친애욕구는 성취욕구와 반비례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그런 역관계는 친애욕구 자체가 아니라 친애욕구의 일부인 배척민감성에 대해서만 나타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배척공포가 높다는 것은 성취욕구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

<표 4> 배척민감성 점수와 다른 동인 점수들간의 상관

연구자(연도)	n	친애 ^a 경향성			
		성공 ^a 욕구	실패 ^a 공포	승인 ^b 욕구	승인 ^b 욕구
김수현(1987)	1265	.03	-.37**	.43**	
한보란(1989)	219	.04	-.27**	.30**	
김영미(1990)	568	.06 ^c			-.21***

주 ^a차재호(1983)가 제작한 동기진단 검사의 하위 척도들 임. ^b금명자(1984)가 제작한 척도임. ^c원래의 연구에서 제시한 상관계수임. 나머지는 본연구에서 새로이 산출한 것임.

** $p < .002$.

다. 마지막으로, 배척민감성 점수와 승인욕구 점수간의 상관인 $r = -.21$ ($p < .002$)로 비교적 낮지만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승인욕구가 높은 사람이 자신이 배척당할 것에 대해 덜 민감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친애욕구 척도와 다른 변인과의 관계 친애욕구 척도의 구인타당성에 관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4편의 연구들에서 다른 변인들과 친애욕구 수준간

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관련 자료를 친애경향성에 관한 것과 친애욕구, 즉 친애경향성과 배척민감성 모두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 다루겠다. 배척민감성에만 관련되는 자료는 없었다.

(1) 친애경향성

먼저 김수현(1987)의 연구에서는 내담자의 친애욕구 수준에 따라 상담자에 대한 호감도나 언어적 반응이 달라지는지를 보기 위하여 피험자들에게 상담장면의 녹음 테이프를 들려주면서, 상담자에 대한 호감도를 평정하고 내담자의 입장에서 상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적도록 했다. 이때 친애경향성 척도 점수로써 피험자를 친애욕구 수준이 높은 집단(상위 15%)과 낮은 집단(하위 15%)으로 구분하였다. 친애욕구 수준과 더불어 조변한 독립변인들은 상담자의 진술 유형과 진술 내용이었다. 진술 유형에는 자기관여적 진술과 사실기술적 진술이 있었다. 상담자의 자기관여적 진술이란 내담자의 행동을 관찰하거나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담자의 감정을 포함시켜 표현하는 것, 예컨대 “그렇게 속이 상하는데도 엄마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걸 보니 내 마음도 호뭇하군요”와 같은 진술이다. 상담자의 사실기술적 진술은 “그렇게 속이 상하는데도 엄마를 이해하려 노력했군요”와 같이 단지 내담자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해주는 것이다. 상담자의 진술 내용에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었다. 긍정적인 내용의 진술은 “X씨는 지금 자신에게 진실하려고 노력하고 있군요”와 같은 내담자에 대한 칭찬이고 부정적인 내용의 진술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속마음과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군요”와 같은 내담자에 대한 비난이다.

먼저 ‘다정하다’, ‘인생이 밝다’ 등과 같은 인상차원에 서의 호감도인 상담자에 대한 “일반적 호감도” 평정을 살펴보면 상담자가 자기관여적 진술을 하는 상황에서 친애경향성이 높은 사람은 비난을 받았을 때보다 칭찬을 들었을 때 상담자에게 더 호감을 느낀 반면, $p < .001$, 친애경향성이 낮은 사람들은 칭찬과 비난간에 호감이 달라지지 않았다(표5 참조). 한편 상담자가 단순히 사실을 기술해주는 상황에서는 친애경향성이나 진술 내용에 따른 호감도의 차이가 없었다(표6 참조). 이런 결과의 양상은 ‘내마음에 든다’, ‘의존할 만하다’ 등과 같은 주관적 차원의 호감인 “개인적 호감도” 평정에서도 나타났다(표 7과 8 참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친애경향성이 높은 사람이 상담자가 자기관여적인 진술을 하는 상황에서 칭찬과 비난에 따라 호감도의 차이를 보인 것은 친애경향성이 높은 사람은 칭찬과 비난에 민감함을 나타내주는 결과이다. 그런데 한가지 지적할 것은 이런 민감성이 나타나는 것은 상담자가 사실기술적인 진술을 하는 상황이 아닌 자기관여적인 진술을 하는 상황, 즉 상대방이 그의 감정을 드러내 주면서 칭찬이나 비난을 하는 상황이었다. 상담자가 자기의 감정을 공개하면서 칭찬을 해주는 상황, 즉 친애적인 행동을 하는 상황에서 친애경향이 높은 사람은 그 상대에게 호

〈표 5〉 친애경향 수준별로 본 칭찬과 비난을 하는 상담자에 대한 “일반적 호감도”(상담자의 자기관여적 진술에 대하여)

친애경향\진술내용	칭찬	비난	차이
고	53.76	36.53	+17.23**
저	42.35	38.29	+4.06**

주. 자료원 : 김수현(1987)

** $p < .001$

〈표 6〉 친애경향 수준별로 본 칭찬과 비난을 하는 상담자에게 대한 “일반적 호감도”(상담자의 사실기술적 진술에 대하여)

친애경향\진술내용	칭찬	비난	차이
고	41.70	40.71	+0.99
저	44.12	38.65	+5.47

주. 자료원 : 김수현(1987)

〈표 7〉 친애경향 수준별로 본 칭찬과 비난을 하는 상담자에 대한 “개인적 호감도”(상담자의 자기관여적 진술에 대하여)

친애경향\진술내용	칭찬	비난	차이
고	47.47	31.41	+16.06**
저	30.24	32.82	-2.58

주. 자료원 : 김수현(1987)

** $P < .001$

<표 8> 친애경향 수준별로 본 칭찬과 비난을 하는 상담자에 대한 “개인적 호감도”(상담자의 사실기술적 진술에 대하여)

친애경향\진술내용	칭찬	비난	차이
고	36.65	39.00	-2.35
저	40.59	34.94	+5.65

주. 자료원 : 김수현(1987).

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는 친애경향성 척도가 타인으로 부터 정적인 강화를 받을 것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를 측정한다는 Mehrabian(1970)의 정의에 부합되는 결과이다. 한편 사실기술적 조건에서 칭찬이나 비난에 따른 호감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상담자가 단순히 내담자의 문제를 반복 기술해주는 경우에는 자신의 장점이나 단점에 대한 지적이 칭찬이나 비난의 의미를 띠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이로써 친애경향성 척도는 친애적 상황에서의 칭찬이나 비난에 대한 민감성을 측정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친애경향성이라는 동기가 드러나려면 상대방이 친애적인 행동을 하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김수현(1987)의 연구에서는 상담자에 대한 호감도 뿐만 아니라 피험자들의 언어반응도 분석했다. 상담자에게 문제해결을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반응(예 : 시간을 잘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의 비율을 살펴보면 상담자가 자기관련적 진술을 하는 상황에서, 친애경향성이 높은 사람은 칭찬을 받았을 때보다 비난을 받았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반응을 더 많이 한 반면, $p < .001$, 친애경향성이 낮은 사람들은 이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9 참조). 한편 상담자가 사실을 기술해주는 상황에서는 친애경향성이나 진술 내용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표10 참조). 상담자에 대한 도움 요청 반응은 일종의 의존반응(dependency behavior)으로서 상담 장면에서 비판적인 상대가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적 행동(instrumental behavior)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상의 결과는 친애경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상대가 자신의 내적인 감정을 이야기하면서 단점을 지적해 줄 때 이를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적을 수용하면서 상대가 자신을 좋아하게 되도록 하기 위한 의존적인 행동을 많이 함을 나타낸다. 즉 친애경향성이

<표 9> 친애경향 수준별로 본 칭찬과 비난을 들었을 때의 “문제해결 노력 반응”의 비율(상담자의 자기 관련적 진술에 대하여)

친애경향\진술내용	칭찬	비난	차이
고	2.58	13.76	-11.18**
저	8.00	6.66	+1.34

주. 자료원 : 김수현(1987)

**P < .001.

<표 10> 친애경향 수준별로 본 칭찬과 비난을 들었을 때의 “문제해결 노력 반응의 비율”(상담자의 사실 기술적 진술에 대하여)

친애경향\진술내용	칭찬	비난	차이
고	2.21	1.19	+1.02
저	1.15	2.64	-1.49

주. 자료원 : 김수현(1987)

높은 사람은 자기를 공격해오는 상대에게 공격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복잡함으로써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려는 전략을 취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김수현(1987)의 연구에서는 내담자의 감정이나 정서를 표현한 말이 포함된 언어 반응의 빈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상담자가 자기관련적 진술을 하는 상황에서, 친애경향성이 높은 사람은 비난을 받았을 때보다 칭찬을 받았을 때 더 감정표현을 많이 하는 반면, $p < .02$, 친애경향성이 낮은 사람은 칭찬을 받았을 때보다 비난을 받았을 때 감정표현을 더 많이 했다, $p < .02$ (표11 참조). 사실기술적 상황에서는 친애경향성이나 진술 내용에 따른 감정표현 양의 차이는 없었다(표12 참조). 이로써 친애경향성이 높은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 할 경우 비난을 받을 때보다는 칭찬을 받을 때 마음을 열고 감정을 표현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을 호감도 자료와 관련시켜보면 친애경향성이 높은 사람은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며 그런 대상에게는 자기를 공개하는 반면,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은 싫어하며 그런 대상에게는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음을 나타낸다(표5와 7 참조). 그러나 친애경향성이 높은 사람은 자기를 비난하는 대상을 싫어하기는 해도 그 대상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같은 의존적인 반응은 한다(표9 참조).

<표 11> 친애경향 수준별로 본 칭찬과 비난을 들었을 때의 "감정·정서표현 반응"빈도(상담자의 자기관여적 진술에 대하여)

친애경향 \ 진술내용	칭찬	비난	차이
고	5.21	3.50	-1.17*
저	3.21	5.38	-2.17*

주. 자료원 : 김수현(1987)

*P<.02

<표 12> 친애경향 수준별로 본 칭찬과 비난을 들었을 때의 "감정·정서표현 반응"빈도(상담자의 사실 기술적 진술에 대하여)

친애경향 \ 진술내용	칭찬	비난	차이
고	3.83	4.58	+0.75
저	3.08	2.79	+0.29

주. 자료원 : 김수현(198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수현(1987)의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바에 따르면 친애경향성 척도는 (1)칭찬과 비난에 대해 민감한 것, (2)비난을 받았을 때 상대에게 의존적으로 나가는 경향, 그리고 (3)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감정을 표현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첫번째 것은 Mehrabian(1970)의 친애경향성 척도 정의에서 나타난 것이지만 나머지 것들은 새로이 검증된 것이다.

(2) 친애욕구

장영수(1984)의 연구에서는 Heider(1958)의 삼원구조(p-o-x)상황에 대한 유쾌도와 기대도를 11점 척도상에 평정하게 하고 그 평정치에서 친애욕구 수준에 따른 차이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친애경향성 점수와 배척민감성 점수를 합산하여 친애욕구 수준이 높은 집단(상위 25%)과 낮은 집단(하위 25%)으로 구분하였다. 주어진 삼원구조의 상황이 얼마나 유

쾌한지를 묻는 유쾌도 평정을 종속변인으로 하였을 때, 친애욕구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삼원구조에 대해서 덜 유쾌하게 느꼈다($p < .05$). 이를 좀더 자세히 보기위해 삼원구조를 +p/o인 상황, 즉 내(p)가 타인(o)를 좋아하는 상황과 -p/o인 상황, 즉 내(p)가 타인(o)를 싫어하는 상황으로 나누어 분석해 본 결과 +p/o 상황에서는 친애욕구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p/o인 상황에서는 친애욕구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 보다 덜 유쾌하게 느꼈다, $p < .05$ (그림 1 참조). 이는 친애욕구가 높은 사람은 친애욕구가 낮은 사람에 비해 내가 타인을 싫어하는 상황을 덜 유쾌하게 여기는 것을 나타내므로, 친애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반감(personal antipathy)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친애경향성과 배척민감성 점수를 합한 친애욕구를 다루고 있는데 앞에서 본 負의 대인관계를 불편하게 보는 경향은 주로 배척민감성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어진 삼원구조의 상황이 실제로 얼마나 있을법한 상황인지를 묻는 기대도 평정을 분석해 본 결과 친애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타인(o)과 내(p)가 제3의 물건(x)에 대해서 서로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황보다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황(태도 일치 상황)을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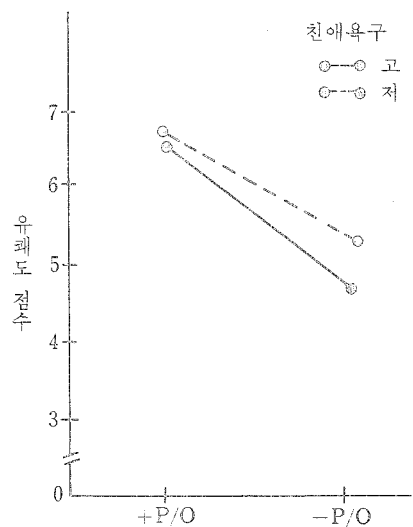


그림 1. P/O관계별 친애욕구집단간 유쾌도 점수(장영수, 1984)

기대하는 반면, $p < .01$, 친애욕구가 낮은 사람은 타인과 자신의 감정이 일치하든 불일치하든 기대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그림 2 참조). 이는 친애욕구가 높은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사람과 사람사이의 일치(interpersonal agreement)에 대한 도식(schema)이 더 발달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김영미(1990)는 친애욕구 수준과 권한의 소유정도에 따라 협동적인 행동의 선택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친애경향성 점수와 배척민감성 점수를 동시에 고려하여, 친애경향성 점수가 높으면서(상위 30%) 배척민감성 점수가 낮은(하위 30%) 사람을 친화 집단이라고 하였고, 친애경향성 점수가 낮으면서(하위 30%) 배척민감성 점수가 높은(상위 30%) 사람을 배척 공포 집단이라고 하였다. 전자는 친애경향성은 높고 배척에 대한 두려움은 낮으므로 순수 친화 집단(고 친화-저 배척공포)이고 후자는 배척에 대한 두려움은 높고 친애경향성은 낮으므로 순수 배척공포 집단(저 친화-고 배척공포)이라고 볼 수 있다. 권한의 소유 정도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prisoner's dilemma game)'에서 상대방의 특성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높은 권한, 상대적으로 더 작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낮은 권한이라고 구분했다. 총 시행 중에서 협동적

행동, 즉 쌍방이 동등하게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경우를 선택한 시행의 비율을 분석해 본 결과 순수 친화 집단이 순수 배척공포 집단보다 협동적인 선택을 더 많이 했다($p < .05$). 그런데 이러한 주효과는 친애욕구 X 권한 소유 정도의 상호작용 효과($p < .05$)에 의해서 제한되었다. 즉, 순수 친화 집단은 높은 권한을 가졌을 때나 낮은 권한을 가졌을 때나 협동행동 선택이 다르지 않았다. 반면 순수 배척공포 집단은 높은 권한을 가졌을 때보다 낮은 권한을 가졌을 때 협동행동을 덜 선택했다, $p < .05$ (그림 3 참조). 즉, 순수 배척공포 집단은 낮은 권한을 가졌을 때 경쟁적으로 행동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친애경향성과 배척민감성을 함께 고려해서 집단을 나누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배척민감성이 높아서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친애경향성이 낮아서 나타난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후자일 가능성이 더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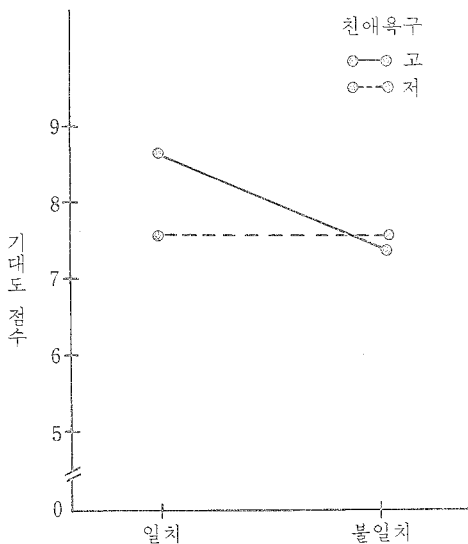


그림 2. 일치-불일치별 친애욕구 집단간 기대도 점수 (장영수, 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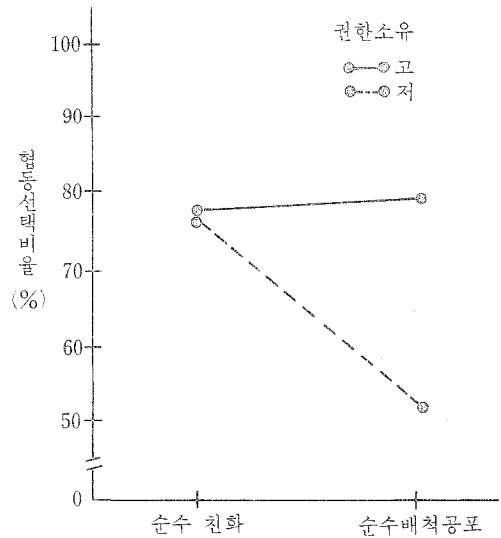


그림 3. 친애욕구와 권한소유정도에 따른 협동선택 비율 (김영미, 1990)

이상에서 3편의 논문 결과를 토대로 친애욕구 척도의 관련 변인들을 살펴보았다. 위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친애경향성 척도는 상대가 자신의 내적인 감정을 공개하는 상황에서 (1) 상대방의 칭찬이나 비난에 대해 민감한 것, (2)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고 감정을 표현하는 경향, 그리고 (3) 비난(배척)을 받을 때 의존적인 반응으로 상대의 호감을 얻으려하는 경향을 측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친애경향성 척도와 배척민감성 척도를 합한 친애욕구 척도는 (1) 타인과의 관계가 부적(負的)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을 측정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2) 제 3의 대상에 대해 두 사람의 태도가 일치하는 상황 도식(schema)의 부각도를 측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참 고 문 헌

- 김수현 (1987). 상담자의 진솔유형 및 내용, 그리고 내담자의 친애욕구 수준에 따른 상담자에 대한 호감도 및 언어반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 논문.
- 김영미 (1990). 친애동기와 권한의 소유정도가 협동적 행위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장영수 (1984). 가상적 사회상황에서의 삼자관계의 지각과 친애욕구와의 관계. 서울 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한보란 (1989). 상담자의 자기관여 반응과 내담자의 성취동기가 상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Mehrabian, A. (1970).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easures of affiliative tendency and sensitivity to rejection.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30, 417-428.

A Report on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need Affiliation Scale

Jae-Ho Cha & Jee-Won Cheong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reliability and of a validity need Affiliation scale(Cha, 1983) were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3 master's and a doctoral dissertations. The test-retest reliability coefficients of the affiliative tendency score and the sensitivity to rejection score, the two components of the scale, were, respectively, .87 and .91, and the Cronbach's α ranged .77~.82 and .76~.91, respectively, for the two subscales. The affiliative tendency scores were revealed to be independent of the scores of the sensitivity to rejection, the tendency to achieve, the fear of failure, and the approval need. A high affiliative tendency score was associated with (1) a sensitivity to the positivity of rewards, (2) a high tendency to open up and disclose the self, and (3) a tendency to adopt dependency behavior when criticized by other persons. A high need affiliation score(the affiliative tendency + the sensitivity to rejection) was related to (1) a dislike of negative interpersonal relations and (2) a highly developed schema of interpersonal agreement.